

**인 사**

◆ 한국어촌어항협회

○ 인사발령 - 기획경영본부 신경민(9. 28)

**화 축**

- 축하합니다.

◆ 배평암(전 회장)님의 장남 지훈군

○ 일시 : 2009년 11월 28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앰플러스컨벤션웨딩 3층(군인공제회관 빌딩)

**주소 변경**

◆ 류제응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18-1 레미안 퍼스티지 119-403호  
○ 휴대전화 : 010-3795-0753

선 명	기 간	지 역(항)	선 정	연 락 처
어항 901호	9~28	수리	백남춘	011-247-5592
어항 902호	2~7	툼머리	이일구	010-7175-5590
어항 903호	9~28	수리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9~28	수리	박주종	011-232-5596
어항 905호	2~13	내항, 학림, 이운, 견유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9~28	수리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2~7	주문진	최일선	011-243-5597
크린오션호	9~28	수리	김용익	011-243-5590

생각하는 **語** 장

**김연아의 우승을 축하하며**

영국 화가 헨리 레이번 경의 <스케이트를 타는 로버트 워커 목사>의 그림처럼 영국에서는 18세기 이전부터 스케이트가 대중화되었고 18세기 중엽에는 스케이팅 클럽이 창설되기도 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도 스케이팅은 처음부터 신분계층을 뛰어넘어 평민과 귀족 모두에게 사랑받은 운동으로 마리 앙투아네트도 궁정에서 스케이트를 즐겨 타기도 했다.

나폴레옹도 스케이트 타기를 매우 좋아하여 군교(軍校)시절 기숙사 인근의 호수에서 학우 4명과 스케이트를 탔는데 저녁 무렵 나폴레옹이 돌아가기를 권했으나 다른 네 명이 좀 더 놀기를 원해 나폴레옹 혼자서 돌아오게 되었고 남은 네 명은 호수의 얼음이 녹아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보나파르트'의 스케이트' 라는 말은 나폴레옹이 스케이트를 좀 더 탔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도 청(淸) 때 자금성 태액지(太液池)에서 유빙혜(溜氷鞋)를 신고서 재간을 겨루어 황제가 상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 스케이트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미국인 알렌 박사부부로 개화 문명에 호기심이 많았던 고종을 위해 경복궁

향원정(香遠亭)에서 빙족희(氷足戲)라 부른 스케이트 시범을 보였는데 명성왕후는 일국의 사신 부부가 남사당과 같은 재인(才人)들이나 하는 발장난을 하며 남녀가 서로 손을 잡았다 떼었다 하는 것을 천하고 불순한 행동으로 생각하여 스케이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다.

한국의 최초의 스케이터는 현동순으로 1905년 캐나다 선교사 질레트에게서 산 스케이트를 삼청동 구수(溝水)에서 탄 것이 처음으로 그 후 미국과 일본에서 스케이트를 들여와 일반인들이 타기 시작했는데 고작 10년이 지난 1915년 한강에서 학생빙상대회가 열렸으니 당시 스케이트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피겨스케이팅은 19세기 중엽 런던에서 클럽이 창설되었고 미국인 헤인스가 유럽의 춤 동작을 응용한 스케이트 기법을 소개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 스케이트가 보급된 지 100년 남짓 지났고 일천한 피겨스케이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150년의 역사의 유럽선수들을 제치고 김연아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는 기쁨을 토한 것은 재예(才藝)에 대한 우리 민족의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